

미국 청소년과 함께하는 2023년 4-H국제펜팔(1차)

I 목적

- 물리적 거리와 학업으로 인해 국가간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제펜팔을 통해 국제적 연대와 이해를 도모하며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

II 추진기관

- 한국4-H본부와 미국 States' 4-H International (이하 S4-H)가 협력 추진
 - 한국4-H본부 : 한국4-H활동지원법에 의한 4-H활동주관단체로 4-H이념에 따라 실천중심의 청소년 교육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주무관청 : 농촌진흥청)
 - 홈페이지 : www.korea4-h.or.kr
 - 온라인 한국4-H신문 : www.4hnews.kr
 - 미국 States' 4-H International(S4-H) : S4-H는 각 주립대학의 4-H청소년개발센터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4-H국제교류 단체로 1972년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 22개국과 교류하고 있음.
 - 홈페이지 : www.states4hexchange.org



4-H는 Head(지, 智), Heart(덕, 德), Hands(노, 勞), Health(체, 體)의 4개의 H를 뜻하며, 좋은 것을 더욱 좋게(To Make the Best Better) 실천으로 배우자(Learning by Doing)를 모토로 하며, 실천적 경험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청소년교육운동입니다. 전 세계 75개국에서 4-H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리더십, 생활기술(Life Skill), 농업·환경·생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Ⅲ 4-H국제펜팔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구성

- 나이 · 성별 · 관심도가 비슷한 미국 청소년을 선정해 한 달에 2회 이상 영어로 직접 교류
- 매월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제 제공
- 활동 이후 2023년 5월 5일까지 한글소감문을 4-H온라인 프로젝트 플랫폼 ‘4-H놀이터’에 작성한 참가자에게 활동증명서 발급
 - 4-H놀이터 주소 : <https://cafe.naver.com/4hplayground>
- 격주 펜팔 확인(Biweekly Checking)을 통해서 펜팔 활동 점검

○ 활동기간 : 2023. 2. 1 ~ 4. 23 (3개월)

- 미국 펜팔 청소년 정보 2023. 1. 31까지 안내 예정

○ 참가비 : 10만원

- 참가 신청시 참가비를 입금해야 참가 확정됨
- 2023년 3월 1일까지 미국 펜팔친구로부터 메일이 한 번도 오지 않는 경우 펜팔친구 교체 또는 참가비 환불

○ 문의 : 전략사업부 02-440-1637

Ⅳ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3년 1월 9일(최종 참가자 확정안내 23. 1. 16)

○ 모집인원 : 대한민국 청소년(초4~고3) 100명 내외

- 4-H회원 및 일반 청소년도 신청 가능
- 학년은 2023년 기준

○ 신청방법 : ①개인 또는 ②그룹 신청 가능

① 개인 신청

- 신청자 : 청소년 개인 (또는 학부모)
- 신청방법 : 붙임2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전송. 참가자명으로 신청비 입금
- 이메일 : 4hedu@4-h.or.kr

② 그룹 신청

- 신청자 : 지도자(지도교사) ※ 교내 영어 동아리 운영 지도교사 등
- 신청대상 : 신청자격(만11~18세) 청소년 10명 이상 국제펜팔에 참가하기로 한 그룹
- 신청방법 : 붙임3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전송. 지도자명으로 전체 신청비 입금
- 이메일 : 4hedu@4-h.or.kr
- 그룹 신청시 활동장려비(간식비 등) 지원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4hedu@4-h.or.kr) 전송 후 참가비 1인당 10만원
입금해야 최종 참가 확정

- 참가자 명으로 입금 (그룹 참가자는 지도자명으로 입금)
- 계좌 : 농협 359-17-001690 한국4-H본부

V 자주 하는 질문

Q. 미국 친구는 어떤 사람으로 매칭이 되나요?

A. 한국 신청자의 나이 · 성별 · 취미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청소년으로 매칭합니다.

Q. 왜 4-H를 통한 국제펜팔을 해야 하나요?

A. 4-H는 미국에서 1902년 시작된 청소년교육운동으로 현재 미국 최대의 청

소년단체(600만명 참여)입니다. 4-H는 미국주립대학(State University) 소속의 4-H담당자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Q. 왜 참가비를 내야 하나요?

A. 미국 청소년을 매칭하기 위한 비용과 함께 한국청소년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이버카페 ‘4-H놀이터’에서 격주간으로 진행되는 ‘Biweekly Checking’을 통해 지속적으로 펜팔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Q. 그룹 참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또는 단체)에서 청소년 10명과 1명의 지도교사 선생님이 그룹 신청시 활동장려금(간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붙임2 그룹 신청서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

Q. 1달에 2번만 소통해야 하는 건가요?

A. 1달에 2번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 이상으로 소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매달 주제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꼭 그 주제로만 소통해야 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주제를 제공해 주는 이유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Q. 활동확인서는 참가한 사람에게 모두 발행하나요?

A. 아닙니다. 활동 이후 5월 5일까지 네이버 카페 ‘4-H놀이터’에 활동소감문을 작성한 참가자에 한해 활동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회원의 소리



이규아

경기 용인 구성중학교

평소 외국인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었던 나에게 이번 기회는 정말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였다. 학교 알리미에서 국제 펜팔 참가자 신청이라는 공지글을 보자마자 단 3초의 고민도 없이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당장 엄마께 말씀드렸다.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엄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하시며 흔

쾌히 허락해 주셨고, 그때부터 미국인 친구가 배정되기까지 하루하루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냈다.

내 미국인 친구는 Jenna Pepperman(제나 페퍼맨)이라는 친구이고, 우리는 서로를 Jenna, Kyuah라고 부르기로 했다. 제나는 애든버러에 사는 친구였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각자의 나라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에 대해 알려주며 정말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제나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한 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제나는 미국 나이로 12살, 8월 10일 생이라고 했다. 우리는 꽤 공통점이 많아 서로를 더 공감할 수 있었다. 제나는 외동아였고, 한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며, 나와 같이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까지 같았다. 나는 점점 제나에게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내 생각에는 제나도 그럴 느낀 것

같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함께 편지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생활과 일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설레고 두근거리는 일이었다.

제나는 언제 한번 자신의 학교에서 곧 열릴 축제를 위해 피터팬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좀 부러웠다. 지금의 나는 담장 눈앞에 있는 시험과 학교, 학원 다니기 바쁜데 미국의 학교에서는 연극 준비를 하기 바쁘다니, 우리 삶의 다른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번만이 아니었다. 제나는 여름방학 동안 영화 캠프를 다녀왔다고 했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으며, 오늘 받은 메시지에서는 학교에서 토크쇼 파티를 했다고 하였다. 나는 꿈만 꾸보였던 그 파티를 직접 해 보았다고 하니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사실 좀 아쉽기도 했다. 아니, 사실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제나가 언젠가 나에게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워 보인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이때까지 한 생각과 마음을 정말 반성했다.

그리고 또 내가 제나에게 정말 감동받은 적이 있었다. 제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딸도 하지 않고 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것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제나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등의 생각이었다. 그 편지 안에는 직접 쓴 편지와 엽서, 제나의 졸업사진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나도 더 제나를 진심으로 대해야겠다는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날 밤 즉시 나도 편지를 쓰고 내 증명사진을 넣고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와 해리포터 엽서를 담아 제나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우체국에 편지를 부쳤다.

그리고 제나는 항상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 전날 축제와 시험에 지쳐 잠들었던 내가 일어나서 메일을 확인하는데 그날 마침 딱! 메일이 와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 메일은 평범한 쪽지가

아닌 제나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동영상이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감동받았던 포인트는, 음악이 테연의 fine이라는 노래였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며 한 번 들어보라고 했던 바로 그 노래였다. 그 영상 덕분에 하루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제나는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나에게 행복을 선물했으며, 한 명의 좋은 친구를 선물해 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많은 힘을 주었다. 제나가 갑자기 보내주었던 그 편지는 볼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었고, 제나가 직접 만든 그 영상은 내가 힘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보는 나의 에너지가 되었다.

이 글을 읽게로, 제나에게 정말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와, 계속 이렇게 좋은 친구 사이로 남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와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을 선물해 준 제나에게 너무 고맙고 이런 국제 펜팔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4-H본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온라인 4-H신문에서 보기 : [클릭](#)